傳記文獻資料의 調査와 實例

鄭 明 世

<目 次>

Ⅰ. 序 言
Ⅱ. 調査의 必要性과 그 價値
Ⅲ. 調査項目의 分類
1. 年 譜
2. 姓 名
3. 居住地
4. 生歿年代
5. 系 譜
6. 學 統
7. 履 歷
8. 性 行
9. 詩文創作
10. 著述活動
11. 逸 話
Ⅳ. 調査, 作成의 實例
1. 金就文論
2. 朴雲論
Ⅴ. 結 言

Ⅰ. 序 言

傳記란 個人의 一生의 內·外的 生活을 記錄한 것이다. 이러한 個人의 傳記에 關한 文獻資料를 收合하고 이를 根據로 한 作家硏究는 現在까지 많은 業績이 이룩된 學界의 實情이다.[1]

그러나, 이 先行의 硏究는 自身의 硏究分野나 該當 作家의 性格 및 時代相에 關聯지워 每 境遇 處理된 印象이 짙다. 아울러, 作品解釋을 위해서 作家의 傳記文獻資料에 대하여 關心을 가졌으나, 客觀的인 絕對證據가 되는 確實한 考證과 書誌的 調査가 隨伴되지 않은 事例도 있었다. 또한 該 作家에 聯關된 보다 廣範圍한 文獻資料를 蒐集하여 이에 나타난 諸 事實들을 作家硏究에 導入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筆者 역시 그간에 詩歌文學의 發展에 貢獻한 作家를 發掘, 紹介하면서,[2]

1) 古典文學分野에서는 黃浿江等 共著의『韓國文學作家論』Ⅰ, Ⅱ(螢雪出版社, 1977, 1986), 現代文學의 境遇로는 申東旭 外 5人 共編著의『現代作家論』(螢雪出版社, 1981)을 그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다.

2) 筆者가 諸 文獻에서 發掘, 學界에 紹介한 時調作家로는 榮州의 朴璇, 閒夏의 權燮, 善山의 朴雲, 全州의 李三晩 等이 있겠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들의 傳記部分의 論及에서는 對象에 대한 主觀的 解釋이나 評價에 치우친 感이 있었고, 文獻資料의 充分한 調査와 現場資料의 섭렵을 切感했다.

本稿에서 筆者는 이러한 傳記文獻資料를 통한 作家에 관한 論及에 있어서 그 難題가 다소 완화되고 바람직한 方向으로 進行되기 위해서, 該 資料의 必要性과 價値를 究明해 본다. 이어서 이에 관련하여 어떠한 文獻資料가 收合되고 分類, 評價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具體的 實例를 通해서 論及하고자 한다.

Ⅱ. 調査의 必要性과 그 價値

傳記文獻資料는 該 作家의 傳記的 考察을 爲해서 所用된다. 作家의 傳記的 考察은 作品의 올바른 理解와 광범한 硏究를 위한 必須段階에 該當되며 일정한 範圍를 넘어섰을 境遇가 있어도 合當하지 않다. 이러한 傳記文獻資料의 收合作業은 文學作品의 形成主體를 究明한다는 意味로서 作家와 作品을 不可分의 關係로 묶어 두고 있는 셈이다.[3]

이와 같은 傳記文獻資料를 통한 이 作家硏究의 方法은 가장 基礎的인 作業이며, 西洋에서도 생뜨 뵈브나 메느의 活動時期부터 오랜 時日에 걸쳐서 권위가 있는 것으로 認定받아 온 것도 事實이다.

우리는 作家의 生涯, 爲人, 環境, 履歷, 詩文創作, 著述, 思想 等에 해당되는 事實들을 발췌하여 作品解釋에 聯關시키고자 作家들의 傳記文獻資料에 關心을 갖는다.

이러한 方法을 통한 作家硏究가 필요한 까닭을 생뜨 뵈브(1804~1869)는 아래와 같이 言及했다.

> 훌륭한 知性人 두 사람이 한 作家에 대해 完全히 다른 判斷을 내리는 것은 사실 그들이 그때에 같은 對象과 문제되는 作家의 같은 作品과 그 作品의 같은 句節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作家의 전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때 그 作家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해도 좋다는 사실을 나는 자주 보아 왔다.[4]

한편 文學作品을 남긴 該 作家의 詳細한 傳記文獻資料을 우리들이 接하

3) 金容浩, 文學硏究方法論序說, 『國文學論集』 第一輯(檀國大 國文科, 1967), p.14.

4) 버어넌 홀 著, 李在浩, 李明燮共譯, 『西洋文學批評史』(探求堂, 1975), p.16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여 읽게 될 때에, 해당 作品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文學硏究者에게는 作品理解에 한 걸음 닥아선 듯한 自身感을 갖게 한다.

하지만, 傳記文獻資料에서 作家에 관련된 事實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부분을 作品硏究에 선택, 원용하려면 관심을 가진 자의 세심한 주의가 뒤따른다.

가령, 記載된 內容 가운데 어느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간혹 無意味하다고 생각한 사소한 記事가[5] 이외로 作品을 해석하는데 큰 암시를 주기도 하고, 작가를 올바르게 批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광명을 던져 줄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作家의 生涯에서 큰 事件이라고 생각되고, 傳記文獻資料의 立場으로 볼 때도 중요한 것이라 看做되는 것도 실제로 作品과 아무런 關係가 없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이 兩者의 取捨選澤은 硏究者 自身에게 부과된 업무이다.

또한, 이 傳記文獻資料가 充分히 수집되고 檢討되지 아니했을 때에 作家에 대한 論文가 자칫 별다른 例證이 없는 過大評價나 人物의 平面的 叙述에 그치는 경우를[6] 古典文學作家에서는 자주 發見되는 實例에 해당이 된다.

前註 (1)에 포함한 作家 傳記文獻資料의 解釋 내지 叙述部分에는 이러한 事例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傳記文獻資料를 收合하고 이의 分析을 기초작업으로 하여, 作品을 作家와 관련 위에 놓고 발전적으로 살펴본다면 作品 하나를 조상해 놓고 論究하는 것보다는 한층 더 効果的인 成果를 올릴 수 있다는 點에서 作家에 관련된 傳記文獻資料가 보다 광범하게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들 수집된 事實들이 科學的으로 分析되어야만 傳記文獻資料를 통한 作家關係究明이 作品解釋의 根幹으로서 價値를 지닌다고 하겠다.

Ⅲ. 調査項目의 分類

한 作家를 硏究하거나 作品을 理解하는 데 있어서 먼저 關心을 두게 되는 것은 作家의 傳記的 事實임은 前項에서 論及한 바 있다.

---

5) 이 때의 記事라고 쓴 用語는 諸 文獻資料에서 抽出된 事實들을 말하는 包括的 意味로 使用해 본 것이다.

6) 李起哲, 『作家硏究의 實踐』(嶺南大出版部, 1986), p.2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本項에서는 이러한 作家의 傳記文獻資料에 포함되어 있거나, 傳記文獻資料를 調査, 收合할 때에 어떤 項目이 필수적으로 설정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論及할 順序이다.

이 方面에 대한 調査가 具體的인 學的 關心으로 대두된 것은 1970年代 初期 梨花女大 韓國語文學硏究所 批評班에서 現代作家의 傳記資料收合을 爲한 基礎調査를 實施한 事例가[7] 처음인 줄로 等者는 알고 있다. 이 때 종사원이 調査하도록 配當받은 事項은 아래에 紹介하는 13가지 境遇였다.

> ／姓名, 出生과 出生地, 家族, 就學以前, 學歷, 經歷, 交友關係, 結婚과 異性關係, 子女, 文壇經歷, 死亡時까지, 其他事項／

그러나, 古典文學作家의 境遇는 學歷이라든지 經歷이 위와는 一致될 수 없고 그 나름의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筆者는 時調作家論을 硏究課題로 選定하고, 이에 關聯된 몇 篇의 論文을 作成하는 가운데 作家의 傳記文獻資料에서 論及되어야 할 項目을 아래와 같이 12項目으로 細分하여 各種의 記事를 探索해 가는 作業을 進行하였다.

1. 年 譜	2. 姓 名
3. 居住地	4. 生歿年代
5. 系 譜	6. 學 統
7. 履 歷	8. 性 行
9. 詩文創作	10. 著述活動
11. 逸話	12. 雜載[8]

그러면, 이에 대하여 한 項目씩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年 譜

한 人物의 傳記를 살피는 境遇, 그의 〈年譜〉는 作成되어 있어야 하고, 그 資料를 援用해서 이들을 年代順으로 檢討할 때, 그의 生涯 및 爲人은 具體的으로 밝혀진다.

그러므로 作家의 傳記的 硏究는 이 年譜作成으로부터 始作되며 이 年譜는 곧 傳記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개념 규정상 일치되어 사용된다. 旣往의

7) 이 때에 調査된 資料가 後日 補完, 整理되어 單行本으로 出刊되기도 했다. 梨花女大 韓國語文學硏究所 編, 『韓國作家傳記硏究』, 上, 下. (同和出版公社, 1975).

8) 作家에 관련된 其他 여러 가지 事項을 指稱한 用語로 사용한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先行 硏究物을 接하면 간혹 作家에 대한 論攷가 仔細하지 못함을 發見하게 되는데, 이러한 事實은 年譜作成이 不充分한 데 基因한 것이다.

年譜作成에 있어서는 우선 그 作家에 관한 先人들의 評價를 완전하게 把握한 후에 이것을 根幹으로 하여 되도록 넓게 網羅해야만 한다.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該 作家의 生涯에 相關이 있는 諸記錄들을 可能한 많이 蒐集하여 이것을 다시 年代順으로 整理, 排列함이 필요하다. 作家에 관한 事件이나 事實은 물론이요, 그 作家의 血緣, 交友, 親知들에 대해서도 광범하게 섭렵하여, 그 時代의 主要 事件과 함께 다른 書式을 만들어 記錄해 둔다.

또한, 該 作家에 관련된 記錄이 比較的 豊富할 때에는 傳記的 事實과 文學的 事實로 分類하여 排列하는 것이 便利하다. 여기서 文學的 事實이라고 한 것은 文學作品들을 分析한 結果도 포함 된다. 아울러 記錄할 事項은 內容別로 細分할 필요가 있으며, 年代와 日字가 分明하지 않는 경우는 적절히 類推하여 記錄해 두는 데까지 細心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年譜作成은 相當한 時間과 作成者 個人의 노력이 要請되기는 하나 이런 천착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作家의 完全한 硏究는 不可能하다.

그런데 古典作家群에서 年譜가 比較的 詳細하게 作成된 경우를 찾아 보면 그 分量이 많이 할애되고 있다. 즉, 鄭澈에 관련된 『松江鄭文淸公年譜』는[9] 全2冊의 分量으로 仁祖 25年(1647)에 金長生, 宋時烈 等에 의하여 作成, 刊行된 바가 있으며, 『漢陰年譜』(李德馨)같은 資料는[10] 後孫 李基讓이 高宗 6年(1869)에 完成했는데 그 分量은 全3冊이나 된다.

때때로는 古典作家의 경우에 있어서는 後孫이나 有名人士가 쓴 《行狀章》가 散在해 있어서 年譜의 役割을 대신하는 實例도 있다.

2. 姓 名

두번째 項目은 姓名部分인데, 우리는 어떤 作家가 本名 이외에 異名, 筆名, 別名이 使用된 境遇와 改名한 事實도 있다면 이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어서 字와 號를 使用한 作家이라면 이것도 調査해야 하며, 號와 같은 데는 때로 그 緣由가 있는데 이것도 빼놓지않고 밝혀야 한다. 아울러 作

9) 大東文化硏究院(成均館大) 影印本, 『松江全集』(1964), pp. 143~204.
10) 李鉉淙, 海外所在 韓國文獻, 『韓國學文獻硏究의 現況과 展望』(亞細亞文化社, 1983), p. 277 參照.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家가 쓴 貫鄕도 銘記해 둘 필요가 있다.

위에 열거한 이런 事實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는 理由는 該 作家의 生存年代를 알 수가 없을 때에 世譜類 文獻을[11] 통해서 이를 밝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관련하여 筆名과 匿名으로 記載된 文學作品이 있다면 이에 관한 硏究는 지금까지 文學史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버려진 人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點에서 그 意義를 지닌다.

위에서 言及한 姓名項目에서 改名한 것이 本名처럼 使用된 實例를 찾아본다면 『諸賢歌詠』이란 筆寫本類 時調文獻에 作品 1首가 실린 全州出身의 書藝家 李三晩의 境遇가 있겠다.

그 自身의 本名은 奎奐이며 字를 允遠, 號는 蒼巖이라 했다. 그의 가정은 累代에 걸쳐 極貧하여 正常的인 受學의 機會조차도 얻지 못하고서 四書 等도 어깨너머로 익히어 學問盡力에도 他人보다 늦게야 始作했었다. 또 交友時期도, 成家하여 슬하에 子女를 두는 일도 늦어 이 세 가지 事實에 緣由하여 그 姓名을 三晩으로 고쳤다고 그의 後孫 李淳相翁은 證言하고 있다.[12]

3. 居住地

該 作家의 境遇, 出生地, 成長地, 居住地가 同一한 例도 있겠으나, 때로는, 官職生活, 流配事實, 天災地變 等 諸 要因으로 인해서 居住地가 數次 移動되는 事例도 있을 수 있다.

本項에서 論及할 대상은 作家의 居住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첫째 文學作品의 創作地와 그 背景을 理解하는 데 도움을 주며, 둘째 作家의 傳記的 事實을 究明할 수가 없을 때에 그 地方에 居住하는 後孫을 탐문해서 찾아 내는 것을 可能하게 한다. 이들 後孫과의 접촉으로 뜻밖의 수확을 얻어낸 事實을 우리들은 자주 接하게 된다.

이에 관련된 具體的 實例는 『歷代時調全書』에 未收錄된 75首나 되는 時調作品을 남긴 權燮(1671~1759)을 들기로 한다.

그는 漢陽 名門家에서 出生하였으며 漢陽, 堤川, 단양, 聞慶 等으로 옮겨 生活했다. 하지만 80平生 오직 學問硏磨와 各地의 수많은 勝景을 探勝하며

11) 世譜類 文獻이란 該當 門中의 派譜, 族譜, 世譜, 家乘, 大同譜 等을 총괄하는 名稱으로 使用했다.

12) 拙稿, 李蒼巖時調硏究, 『嶺南語文學』 第12輯 (嶺南語文學會, 1985), p.79 參照.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지낸 閑居生活을 했었던 그이기에 이런 事實들이 그의 詩文創作에 多樣한 素材를 提供해 주었고, 많은 詩作品을 남긴 動機가 된 것이다.

權燮의 詩文遺産中 〈花枝九曲歌〉란 作品은 作家가 晩年 生涯를 보낸 慶北 聞慶郡 聞慶邑 花枝里를 素材로 해서 지은 총 10수로 구성된 九曲體 詩歌群에 해당되는 漢詩이다.

筆者는 1982年 겨울, 權燮의 居住地였던 上記場所를 訪問하고서, 이곳에서 後孫 權熙達님을 만나 이러한 事實을 확인했다. 또한 그 분의 好意로 權燮의 諸 文學遺産을 接한 후, 그 一部를 學界에 紹介한 바도 있다.[13]

4. 生歿年代

現傳 作家中에서 有名作家群에[14] 속하는 人物은 그런대로 生歿을 포함한 一生의 발자취를 體系的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반면에 中人, 胥吏, 歌客, 妓流階層의 作家들은 不遇하거나 寒微한 生涯를 살았기 때문에 生歿年代마저도 未詳인 채 처리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래서, 그들의 生涯를 平面的으로 記述하기 조차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고, 이들에 관한 諸 記錄을 發掘하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어려운 與件下에서 活用될 수 있는 資料는 世譜類 文獻이라 하겠다. 國立中央圖書館 系譜學資料室과 釜山에 設立된 私設 韓國族譜圖書館은 이와 같이 生歿年代를 알 수 없는 作家들의 研究의 실마리를 푸는 重要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곳에 備置된 資料들을 効果있게 活用하여 該 作家의 生歿年代와 時代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때 일단 作家研究의 서광이 비친다.

筆者는 이런 世譜類 文獻들을 利用하여 現傳 作家中 生歿年代를 알 수 없었던[15] 몇 명의 궁금증을 풀고 後孫도 訪問한 적이 있다.

그러한 實例에 該當되는 人物로는 坡州의 風流客 沈鏞, 堤川의 隱逸之士 趙榥, 서울의 宮中樂工 河圭一 等이 그 代表的인 경우가 된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筆者는 "沈鏞의 風流와 時調", "趙榥의 現實批判時調"라는 論題를 구상해 볼 수 있었다.

---

13) 拙稿, 〈黃江九曲歌〉研究, 『碧松李根厚先生華甲紀念文集』(嶺南大國文科 同門會, 1985), pp. 495~522 參照.

14)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研究』(世宗文化社, 1972, p. 160)에서 쓴 用語를 그대로 따랐다.

15) 沈載完, 『歷代時調全書』(世宗文化社, 1972), pp. 1274~1285 作家索引 參照.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5. 系 譜

本項에서 系譜라 한 것은 一門의 血統으로 규정된 家系의 意味로 使用된다. 家系는 同族集團村落에서 形成되고 또 出衆한 人物을 中心으로 하여 이룩된 聚落을 통해서 그들의 氏族意識이 釀成된다. 그리고 이것이 朱子家禮란 규범과 人材登用이란 中世의 制度的 影響을 받아 家系는 더욱 重要視되기에 이른다.

이 家系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行狀〉, 〈墓誌文〉, 〈墓碣銘〉이나 〈世系圖〉를 求得하여 그 形成過程을 파악해야만 한다. 이러한 對象들은 대개가 子孫에 의해서 꾸며지거나, 該當 家門과 連臂連査가 있는 學者나 被行狀者와의 知己關係가 있는 學者들에 의해서도 作成되는 것이다.

筆者는 朴雲의 文集에 併錄된 〈墓碣銘〉이나 〈墓誌〉, 〈密陽朴氏四門進士公派世系圖〉를 參考資料로 하여 一門의 家系를 下記와 같이 作成해 보았다.

> 그의 諱는 雲이요 字는 澤之, 號는 龍巖이며 本貫은 密陽이다. 鼻祖는 諱가 華로 高麗 憲宗朝에 出仕하여, 벼슬이 都僉議 右政丞에 올랐으며, 通憲大夫, 密直副使上護軍에 追封되었다. 龍巖의 高祖는 諱가 尙溫이고, 內侍中郎將을 지냈는데, 左右衛保勝中郎將 吳氏 天柱의 따님을 취하여 혼인했고 官職의 移動으로 인해서 여러 地方을 옮겨 가며 生活해야만 했다. 曾祖의 諱는 云寶이요, 祖의 諱는 孝武로 修義副尉를 지냈을 뿐이며 曾祖, 祖의 兩代는 隱不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父親의 諱는 宗元으로 文科에 及第하여 成均進士를 지냈는데, 文章에 뛰어나고 行實에 모범을 보여 鄕里인 海平人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龍巖의 母親은 益城 許氏로 生員 許諒의 따님이다. 龍巖은 弘治 癸丑(成宗 24年 1493年) 6月 海平面 古里谷에서 出生하였다.

위 內容을 檢討할 때에 家系의 究明에서 論及될 事項은 冒頭에는 반드시 字, 號, 本貫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始祖代부터의 當家 및 妻家까지 世系의 人的 事項이 紹介된다. 다음 本人의 學德, 言行, 治家, 生時功蹟을 나열한다. 結論에서는 生卒年月日 및 子女의 人的事項 기록 形式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上記 朴雲의 境遇처럼 遺業을 文字에 傳한 文集이 現存하고 있을 때에는 家系를 살피는 作業은 比較的 손쉬운 편이다. 이러한 諸般 事情이 如意치 아니할 때 活用될 수 있는 資料는 後孫家에서 所藏하고 있는 『家乘』이나 『萬姓大同譜』 等이 되겠다.

이들 資料의 記錄들을 援用할 때 우리는 어떤 家門을 理解하는 데 많은 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움을 받을 수가 있다.

6. 學 統

한 人物의 學問과 思想에 關係되는 傳記文獻資料를 體系的으로 理解하고자 할 때에, 먼저 그 學問的 傳統을 究明하는 作業이 必須的으로 수반된다.

高麗朝 및 朝鮮朝의 學問은 거의 嶺南과 畿湖地方으로 大分되어 形成되고 展開되었는데 이들을 파악하고 整理하는 課題는 방대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關係된 한 個人의 評價와 位置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모든 資料를 섭렵해야만 올바른 成果가 거두어 진다.

이 方面의 先行 업적으로는 肅宗朝 朴世采(1631~1695)가 編한 『東儒師友錄』을 들 수가 있는데, 本 文獻에는 朝鮮朝 性理學의 學風과 그 유파의 系譜와 人物의 근거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어, 後學들이 先祖의 學統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또 近者에는 諸賢人의 門徒, 交友關係를 밝힌 『德川及門諸賢集』, 『陶山及門諸賢集』, 『石潭及門諸賢集』, 『坡山及門諸賢集』 等의 資料集도 出刊되었다.[16] 이 文獻들도 學統에 관련된 資料의 一例에 해당된다.

또한 特定 世譜類 文獻을 수탐해 보면 該 人物의 言及欄에 師友·門人關係를 밝혀서 記入해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學統의 맥을 찾기에 용이한 경우도 있다.[17]

그러면 本項에 該當되는 實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우리는 特定作家의 詩歌文學創作에서 이러한 學問的 傳統의 繼承一面을 쉽게 發見할 수 있는데, 玉所 權燮(1671~1759)이 거기에 적합한 경우가 되겠다.

즉, 그는 栗谷을 繼承하여 九曲體 詩歌를 完成했다. 우선 그 自身이 朱子의 〈武夷九曲歌〉 및 栗谷의 〈高山九曲歌〉를 깊이있게 살핌으로 인해서 詩歌文學에 대한 認識의 範圍를 확대시켰고, 이들을 계승할려는 意志를 확고히 할 수가 있었다.

또한, 本項에서 論及되어지는 學統으로 보아도 朱子나 栗谷 및 宋尤菴 等 諸賢은 이들 玉所家門의 根幹을 形成했다. 이런 緣由로 해서 玉所는 〈武夷

16) 本 資料集에는 李離和, 李佑成, 李泰鎭, 林熒澤 教授의 解題가 첨부되여 그 刊行經緯를 알 수 있다(1982. 3, 10월).

17) 『淳昌趙氏世譜』 8卷 8冊이 그 代表的인 例이다. 國立圖書館所藏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九曲圖〉를 보고 朱子의 隱居地를 상상했고, 海州 所在의 石潭으로 栗谷의 遺蹟을 찾아 갔다. 그래서 〈武夷九曲歌〉를 次韻하는 形式을 使用하여 栗谷의 〈高山九曲歌〉를 漢譯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自身도 같은 方法으로 〈石潭窮心九曲歌〉를 지었고, 伯父 權尙夏의 스승인 宋尤菴이 居住했던 忠北 槐山郡의 華陽洞을 尋訪하고서도 〈華陽九曲詩〉와 〈華陽九曲圖〉를 完成했다. 거기다가 肅宗代에 名望이 있었던 伯父가 晩年生涯를 보내며 講學했던 黃江을 素材로 玉所는 直接 聯時調 〈黃江九曲歌〉를 創作했다.[18]

이렇게 볼 때에 權燮의 〈黃江九曲歌〉는 學統繼承의 一環으로 창작된 詩歌群의 一例에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경우이다.

이러한 學統의 맥락관계는 일찌기 陶南恩師님께서 〈陶山十二曲〉을 嚆矢로 하여 9朝 200年間을 면면히 계승된 양상을 규명하신 바[19]가 있었다.

7. 履 歷

作家의 生涯를 檢討하는 境遇에 있어서 履歷에 該當되는 部分은 광범위하다.

學問傳受의 前後事實이 먼저 해당이 되겠고, 官職에 나아가기 위해서 치른 進士初試를 爲始한 及第時期, 宦路에 들어간 후 歷任한 各 官職事項 等이 포함된다. 牧民官에 있을 當時의 相黜關係, 失職과 同時에 겪는 流配의 苦楚, 學問을 集成하게 되는 著述活動, 國文學 發展에 貢獻한 詩歌創作時期도 나열되어야 한다.

學問傳受는 師友關係를 通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內容에는 該 人物이 學問에 임한 動機, 그에게 平生토록 至大한 影響을 준 人物과 師友로부터 계승된 學說 等이 포함되어 진다. 先賢들은 志操와 忠孝, 德望과 寬厚로써 不陸한 바도 없이 많은 知人을 가질려고 했으니, 親交가 無數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가운데는 自身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바, 家內에서는 嚴親, 舍兄, 族丈을 비롯하여 學堂에서 因緣을 맺은 스승과 衆人의 흠모대상이 된 學者도 있다. 그래서, 後學들은 該 人物의 文集에 첨부된 〈同門錄〉이나 〈師友門人錄〉等을 檢討하게 될 때에 이들의 상호관계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人物의 立身揚名은 仕宦의 길과 통하고 官吏가 되자면 小科,

18) 前註 13)의 論文 參照.

19) 趙潤濟, 退溪를 中心으로 한 嶺南歌壇, 『靑丘大論文集』 第8輯 (靑丘大, 1965), pp. 1~1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文科, 武科, 雜科로 구분되는 科擧를 거쳐야 하거나, 門蔭, 薦擧 等이 있어서 여기에 姓名이 登載되어야만 한다. 國立圖書館所藏인 『朝鮮科官譜』나 『名世叢攷』에 記錄된 것을 보면 約 100餘個 官案에 登科別 人員數는 2萬名에 달하고 있다. 또 同 圖書館에 비치된 『國朝功臣錄』과 『國朝相勳錄』에도 諸人物의 履歷을 밝혀 두고 있어서 本項과 關聯, 檢討의 對象이 된다.

한편, 仕宦者이거나 非仕宦者를 막론하고 많은 人材들이 流配의 형극을 겪었는데, 『朝鮮王朝實錄』의 諸 記事는 各人의 流配狀況을 究明할 수 있는 豊富한 傳記資料라 하겠다.

下記에 紹介하는 記事는 栗谷의 履歷에서 官職事項을 포함한 중요한 部分을 抄記한[20] 것이다.

◦丙子(1576) 二月歸栗谷 十月歸海州石潭 十二月入京除兵曹參知辭遞

◦丁丑(1577) 正月還石潭 十二月擊蒙要訣成 議立鄕約會集法及社倉

◦戊寅(1578) 作隱屛精舍(中略) 先生作高山九曲歌 以擬武夷棹歌 自是遠近學者益進 擬立朱子祠於精舍之北 作文憲書院學規 三月拜大司諫 赴召謝恩 四月歸栗谷多還石潭

◦己卯(1579) 三月小學集註成 五月拜大司諫 上疏辭諫保和朝廷之道

◦庚辰(1580) 五月撰箕子實記 十二月撰靜菴趙先生墓誌

◦辛巳(1581) 十一月經筵日記成

◦壬午(1582) 正月拜吏曹判書 三辭不許 七月奉敎製進人心道說 奉敎製進金時習傳 奉敎作學校模範及事目 八月拜刑曹判書 九月拜議政府右參贊 十二月復命拜兵曹判書

◦癸未(1583) 四月入對請預養十萬兵以備不虞 六月被三司構劾引咎乞退歸栗谷 八月自栗谷歸石潭 九月除敎寧府事 拜吏曹判書 十月赴召謝恩復上疏辭不許

8. 性 行

性行은 文集에 收錄된 〈行狀〉이나 〈年譜〉의 記錄에서나 文學作品을 分析한 結果로써 한 人物의 됨됨이를 評價하는 要素에 포함되는 性品과 行動을 말한다.

그래서, 한 人物이 寬厚, 多感, 德望, 詩才, 志操, 忠孝, 風流의 면모를[21] 지녔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性行의 一部分을 이룬다. 때로는 이

20) 抄記의 대상으로 利用된 資料는 影印本 『栗谷全書』이다(成均館大 大東文化硏究院, 1969年).

21) 前註 1)의 冊, pp.171~178 參照.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들 記錄들이 별다른 資料的 증가가 補完되지 아니한 채로 美化되어 있거나 인물묘사가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나열된 실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에서 脫皮하기 爲해서 우리들은 이 性行이 關聯된 資料들을 檢討할 때에 該 人物의 人格이 他人과 區分되는 要素를 確認해야 한다. 또한 該 人物의 名聲이 遺傳되는 動機도 밝힐 것이며, 個人 自身의 抱負와 功名도 同時에 看破할 수 있어야 한다.

朝鮮朝의 가장 방대한 人物志인 『國朝人物考』에는 한 人物의 性行을 叙述體로 記錄해 두었는데, 後尾에는 반드시 該 人物에 關聯된 論讚이 附記되어 있다. 實際로, 이에 해당되는 評文을 들어 본다.

즉 大笑軒 趙宗道와 젊은 時節부터 交遊한 바 있는 宣祖朝의 柳成龍은 大笑軒의 人物됨을 評하여

「……伯由 外若軼蕩 內守堅確 有烈丈夫風 有……」[22]

라고 했는데, 이 記錄으로도 그가 어떤 性行을 지닌 人物이었던가는 充分히 짐작이 간다.

9. 詩文創作

한 個人의 詩文創作에 關해서는 가장 많은 例로 文集과 같은 著書의 序文, 跋文, 刊記, 其他 併錄된 記事를 通해서도 그 現況을 究明할 수가 있다. 나아가 詩交의 關係가 이루어진 因緣까지도 上記 內容에서 파악된다.

該 人物의 文集類에도 原集, 續集, 外集 等과 누락분을 수집하여 엮은 拾遺도 함께 詩文硏究의 資料로 選定되어야 詩文遺產의 補完이 可能하다.

한편, 文集에 비길 關心이나 努力이 소홀했던 나머지 文集으로 판각되지 못했던 寫本類 文獻에서도 詩文遺產이 散在해 있음을 우리는 자주 接하게 된다.

上記한 文集所載 詩文遺產으로는 國文學의 領域에 포함되는 歌辭와 時調 隨筆 等이 있겠고, 漢文學分野로서는 賦, 詩, 書, 論, 誌, 序, 記, 雜著 等으로 다양하다.

寫本으로 전하는 境遇, 時調가 收錄된 樣相을 보면 特異한 例도 있다.

『眉岩日記草』, 『赴北日記』, 『三洞遊山錄』과 같이 紀行文, 日記의 一部로 記錄에 남은 것도 있으며, 『白雲庵琴譜』에서와 같게 寫本 餘白한 구석에 作

22) 서울大 圖書館 所藏, 『國朝人物考』下(서울大出版部, 1978), p.34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品을 筆寫한 것도 보이고 『牧童歌附錄短歌』처럼 歌辭의 마지막을 끝맺으며 作品을 收錄한 例도 있었다.

한편, 文集, 寫本類에도 실리지 아니한 作品들이 他人의 著書 속에서 發見되는 수가 있어서 詩文遺産이 보탬이 된 實例가 많다. 이러한 作品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서 收合해야만 하며, 이리하여 확인된 資料들은 作品年譜의 作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진행되었다면 詩文의 분야별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實例로 申緯의 경우처럼 小樂府40首, 東人論詩絕句 40首, 後秋柳詩 35首, 貊風十二章, 雜書 50首 等으로 細分하여 詩文에 대한 研究가 친척, 완성되기에 이른다.

詩文內容의 正確한 把握은 作家의 性格 및 思想, 交友의 範圍와 諸 特徵, 나아가 作家의 社會的 位置를 究明하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한다.

또한, 作品의 創作時期도 分明히 확인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基礎資料로 해서 우리들은 該 作家의 文章의 완숙미를 가늠할 수가 있고, 詩作活動을 통한 該 人物의 風流의 면모를 엿보게 된다. 이 詩文創作을 통해서 詩交에 關聯된 師友와 그들의 詩壇에서의 活動相과 貢獻度도 짐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

上記에서 言及한 詩文創作項에서 該 作家의 生涯와 作品을 관련시켜 상세히 年譜를 作成한 업적이 近者에 와서 다수 産生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한 人物은 俛仰亭 宋純이다. 그 一條目을 參考로 例示한다.

王 朝	西 紀	年 齡	記 事	作 品 名	年品數
燕山 7	1501	9	弄雀死爲文以哀之, 李滉·曺植出生	弄雀死哀	1

10. 著述活動

該 人物이 學問探究의 結果를 集大成하여 著書를 편찬하는 活動이 本項에서 論及되는 內容이 된다.

일반적으로 著述의 形態는 單行本으로 傳하고 있기도 하고, 文集에 첨부되어 記事의 一例로 紹介되는 境遇도 있다.

또한 完成된 時期는 알 수가 있으나, 그 내용이 전하지 않는 著書도 있으며, 아울러 그 冊名만 傳할 뿐 未發見인 채 있다가 近者에 紹介되어 그 內容이 公開된 著述도 간혹 접하게 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著者는 自身이 天性이 穎悟하고 일찌기 學問하기를 즐겨하여 왕성한 著述活動을 한 人物도 있으나, 때로는 自身의 著述이 後世에 남는 것을 꺼려하거나 道學에 心醉되어 그 活動에 比해서 著述의 分量이 소규모로 몇 篇만이 傳하고 있는 學者의 例도 있음을 볼 수가 있다.

著述活動의 調査, 確認이 必要한 理由는 前項 詩文創作에서 言及한 바와 同軌로, 이 作業은 作家의 思想과 師友關係究明을 통한 學統의 繼承樣相을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該 人物의 著述活動을 확인하는 例로 朴龍巖의 《擊蒙篇》 境遇를 紹介한다.

現在 『龍巖先生文集』에 그 內容이 남아 전하는 그의 著述은 《擊蒙篇》, 《紫陽心學至論》, 《衛生方》 3篇이 있고, 《景行錄》과 《三侯傳》은 內容에 대한 紹介는 없고 篇名만 적혀 있다.

그 가운데 《擊蒙篇》은 龍巖이 50歲때 中宗 37年(1542年)에 이루어졌다. 本篇은 文集 卷之三 第1 前面에서 第27 前面까지 그 原文이 收錄되어 있다. 그 著述動機에서 龍巖은 「…持敬으로 存心하고 窮格으로 明理하는 것은 道學의 宏綱이며, 이것이 諸賢에 의하여 克明되어 왔으나, 學者들은 그 말은 절실하는 要諦는 잃어버리고, 說은 詳細하나 그 眞은 잃어버리고 비록 方向을 알되 用功을 모른다. 그러므로, 그 論旨를 提出하여 家塾에 갈무리해 두고 사사로 이 읽으면 어리석고 어두운 點을 깨우치는 데 절대적으로 一助가 된다…」[23]고 했다.

이 論及으로 미루어 보면 이 《擊蒙篇》은 朱子의 修爲存養의 方法인 居敬과 窮理에 대하여 그 골자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11. 逸 話

文學作品의 理解에 있어서 그 作家와 作品을 둘러싼 背景이 될 수 있는 남겨진 逸話마저 상세히 調査, 把握될 때에 그 理解의 폭을 넓힌다.

朝鮮朝 初期에 撰述된 徐居正의 『東人詩話』를 비롯한, 中期 洪萬宗에 의한 『詩話叢林』 및 『小華詩評』과 같은 文獻들을 단편적인 문학창작의 逸話와 관련된 記錄이다.

또한, 古時調文獻 속에는 時調의 理解와 관련지워진 逸話들이 많이 併錄되어 있음을 發見하게 되는데, 이 時調逸話를 통해서 우리는 先人의 風流的

23) 『龍巖先生文集』卷之三, 第1 前·後面 參照.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인 벗이나 풍부한 詩情에 接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文學世界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該 作家의 性品에 관계되는 孝行, 衷情, 憂國逸話를 갖고서도 우리는 作品理解의 一面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24]

그 具體的인 實例로 朴璥(1573~1655)의 時調 〈鋤莠歌〉에는 下記의 逸話가 併記되어 있어서 作品의 創作動機와 背景을 昭詳하게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 昏朝時 鄕隣一二人黨於爾瞻 與其同志者 基川倅會于基之客舘 欲爲援引之計以邀公 公不知而往焉 酒一行 四座各以俚語作歌以諷公 公應聲作此歌 以折其陰計 滿座失色而罷[25]

光海昏朝時에, 榮州 近邑의 鄕人 一二人이 權臣인 李爾瞻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고 一黨들을 이루었는데, 基川의 客舘에서는 基川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계책을 써서 朴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가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客舘에 갔었다. 술이 一行에 돌아가고 사방의 좌석에 앉은 자들이 각각 俚語로써 노래를 지어 朴璥을 諷喩하였는 바, 이에 맞서서 이 노래를 지어 불러서 그 陰計를 꺾었다. 이리하여 滿座가 失色하여 罷宴이 되었다.

이런 內容의 上記逸話로 미루어 볼 때에 本 〈鋤莠歌〉는 光海 8年(丙辰, 1616) 作家의 나이 44세 때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榮州, 豐基 近邑의 鄕人들이 무리지어 李爾瞻에 同調하고자 뜻을 세우고, 항상 客舘에 모여 의논을 하고 이 무리 속에 東川 朴璥을 끌어들이고자 했다. 東川이 그러한 계책을 알지 못하고 客舘에 가니 一行이 술을 권하고 그의 뜻을 떠볼려고 할 때에, 드디어 그가 그들의 참뜻을 알고 이에 맞서 〈鋤莠歌〉로써 陰計를 꺾었다고 한다. 이 當時는 權臣 李爾瞻이 王의 총애를 받아 세도를 一身에 모으고 있던 때이라, 國柄을 장악하고 善類들을 포함하고 있는 非行을 目睹하고도, 그 누구도 彈劾上疏를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 朝野의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東川은 忠直의 性品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一黨의 非行을 말하기를 꺼릴 때에 과감히 이러한 諷喩의 뜻을 담은 作品을 지은 것이다.

---

24) 朴堯順, 鄭勳과 그의 詩歌攷 『崇田語文學』 第2輯, (崇田大國文科, 1972), pp. 85~91 參照.

25) 『東川逸稿』卷第一, 歌詞欄 所收.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Ⅳ. 調査, 作成의 實例

前項 Ⅲ에서는 傳記文獻資料를 취급하는 가운데 어떠한 事項들이 具體的으로 言及되는 것이며, 諸 文獻을 통해서 우리들이 필요로 해서 조사해야 할 사실들에 관해서 細分하여 論述하였다.

本項에서는 이러한 事項들을 기초로 하여 筆者가 조사, 작성한 傳記文獻資料의 具體的인 實例를, 2人의 作家를 모델로 삼아, 紹介하고자 한다. 물론 모델 선정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음을 시인하며 後日 補完을 다짐하는 가운데 그 試論으로 作成해 본 것이다.

1. 金就文論[26]

金就文의 字는 文之, 號는 久菴이다. 先祖는 善山人이다. 始祖의 諱는 碑이고 戶曹參議에 贈되었으며, 父 匡佐는 吏曹參判에 올랐던 人物이었다. 母는 大護軍 林武의 女로 貞夫人에 贈되었다.

그는 中宗 4年(1504年) 12月 庚子에 出生하였다. 그 自身 6兄弟中 다섯째이며, 伯氏는 就成인데 號를 眞樂堂이라고 했다.

그 自身 어려서는 長兄 眞樂堂에게 儒學을 배웠고, 자라서는 松堂 朴英에게 受教한 바 있다. 官職에 나아간 것은 中宗 32年(1537)에 丙科에 及第한 것이 始作인 바, 中宗 36年(1541年)에는 刑曹佐郎, 禮曹佐郎을 지낸 후에는 養을 위하여 咸安縣監이 되었다. 계속해서 그는 中宗 39年(1544年)에는 江原都事를 역임했다. 是歲에 中宗이 昇遐하고 仁宗이 즉위하자 廷臣들이 賀禮를 行할 것을 議했으나, 久菴은 慨然 반대하는 疏를 올리고 朱子의 瑞廣節 請不受賀箚을 引用하여 仁宗에게 一遵孝宗布疏視朝할 것을 奏請하였다. 明宗 元年(1545年), 弘文館修撰이 되었으나, 丁內憂로 不赴했고 同王 2年(1547年)에는 戶曹正郎, 工曹를 거쳐 全羅都事를 지낸 다음으로는 同王 19年(1564年)에 羅州牧使의 직에 있었다. 其後 成均館司成을 拜한 해가 그 이듬해인 同年에서 1年 지난 20年(1565年)이었다. 明宗 21年 丙寅年(1566年)에도 議政府檢詳을 거쳐 弘文館應教, 司諫院司諫을 지냈다. 宣祖朝에 접어들

26) 金就文에 관한 論及은 『韓國文集解題 I』(嶺南大民族文化硏究所 刊, 1983), pp. 168~170에 一部가 보인다.
筆者가 本論을 作成하는 데도 先行의 이 論及이 다소 參照가 되었음을 밝힌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어서는 元年(1568年) 殯殿都監의 일을 보았고 承政院同副承旨를 맡았다. 이 때에 金就文은 奇大升, 沈義謙과 같이 金鎧를 論斥했다. 이 時期에 와서 잠시 外職인 江原道觀察使를 지내다가 宣祖 2年(1569年)에 다시 入廷하여 承旨, 戶曹參議, 司諫院司諫을 역임한 것을 끝으로 宣祖 3年(1590年)에 卒하니 是日로 弘文館副提學의 除旨가 그에게 내렸다.

金就文은 본디 姿性明敏하고 簡素寡慾했으며 孝友天成이었다. 金就文은 晦齋, 退溪, 諸賢과 交遊한 바도 있으며, 特히 朴思菴, 奇高峯, 尹梧溪, 朴龍巖과는 親熟한 사이이다.

退溪는 그를 重히 여기고 其子를 靑松에 보내어 만나보도록 주선을 했으며, 「靑松路雖險 觀巨海 見覽人 豈不好耶」라 好評한 바도 있다.

朴龍巖도 「見道之精 儕流中一人」이라고 찬양하였다.

金就文, 그는 特別히 中庸과 朱子書에 用力했으며, 文章은 반드시 義理에 근거했다.

金就文의 文集인 『久菴集』에 실린 詩文은 卷一에 詩(12),[27] 疏箚(3), 啓(10), 書(5), 記(2), 題跋(2), 雜著(4)가 보이고, 卷二에 雜著(4), 碑碣(1), 墓誌(5)가 있고, 卷三에는 附錄으로 公의 行狀, 墓誌, 遺事, 賜祭文等이 있다.

上記 文集은 金鍾秀의 序와 吳載純의 跋文을 실어 正祖 13年(1789)에 7代孫 太和가 刊行하였다.

金就文이 남긴 詩作品은 『久菴集』 卷一에 보이는 12首이다. 원래 그는 崔應龍이 墓誌에서 「下筆成章 洛洛不竭 然韜晦不衒 知者鮮矣」라 評했듯이, 詩文創作에는 卓越한 바가 있었으나 그 遺文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收錄된 것만으로도 그 自身의 特色을 엿볼 수 있다. 그 特色이란 金鍾秀가 文集 序文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其餘詩文 亦皆根據經術 內義理而外華藻 嶺南風氣之多質 亦可以驗其一端矣」라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疏箚中에서 論及되어야 할 것은 〈斥尹元衡疏〉이다.[28] 中宗 昇遐時(1544年) 江原都事로 在職하던 金就文은 또 〈請正喪禮疏〉를 올리어 仁宗에게 賀禮를 물리치고 布衣布冠視朝 聽政할 것을 請함으로 禮를 古制에 歸正할 것

27) ( ) 속에 表示된 숫자는 該當 作品數를 가리키는 것이다.
28) 原文은 佚失되어 文集에 收錄되지 않았다. 짐작하건대, 金就文의 在世時, 權臣을 논박한 글의 內容때문에 그 原文이 佚失된 듯하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을 力說했다.[29]

啓 10篇은 그의 正義精神이 잘 나타났다. 즉 〈憲府啓〉는 明宗 20年(1565年)에 올린 것으로 官紀肅淸을 다짐한 內容이다. 또 司諫으로 있을 당시인 明宗 22年(1567年)에 씌어진 〈諫院啓〉는 帝王이 詞章에만 힘쓰지 말 것을 諫한 것이다.[30]

金就文의 書 5篇은 한결같이 朴龍巖에게 준 與答書로 짧은 內容 속에서도 充分히 그의 憂國之情이 잘 표현되었다.

記 2篇은 그의 文章으로는 逸品에 속한다. 〈深泉寺記〉에서는 寺僧과 眞法을 論하고 있는데 특히 「居山者不必大乘 禪處在塵者未必小乘 禪能居塵而不爲塵所累者道高 寺在山者不必高明遐朗 寺在塵者亦未必醜卑湫隘」이라 하여 悟道와 環境을 論하고 있다. 아울러 〈進齋記〉에서는 金七峯의 書室名 進齋를 가지고 進學之道를 論했다고 하겠다.

雜著에서는 儒敎精神인 仁과 性理學說로써 佛敎를 論駁하고 있고,[31] 〈伍子胥論〉, 〈徐市論〉, 〈田橫論〉 等은 그의 義論의 正義感이 표현되었으며 그 文筆이 流暢明晳하다. 또한 〈孔子問禮於老子論〉, 〈夷齋論〉은 文質이 暢達하고 金就文의 學問이 該博함을 말해 준다. 〈心性情策〉은 「性猶太極也 心猶陰陽也 太極只在陰陽之中 非能雖陰陽也」라고 한 句節에서는 그의 學問思想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 朴雲論[32]

그의 諱는 雲이요, 字가 澤之, 號를 龍巖이라 했다. 本貫은 密陽인데, 鼻祖의 諱는 華로 高麗 憲宗朝에 出仕하여 벼슬이 都僉議 右政丞에 올랐으며, 通憲大夫, 密直副使上護軍에 追封되었다. 龍巖의 高祖는 諱가 尙溫이고, 內侍中郎將을 지냈고, 左右衛保勝中郎將 吳氏 天柱의 따님을 취하여 혼인했고, 官職의 移動때문에 여러 地方을 옮겨 가며 生活해야만 했다. 曾祖의 諱는 云賓이요, 祖의 諱는 孝武로 修義副尉를 지냈을 뿐이며, 曾祖, 祖 兩代

29) 「昔寧宗當瑞慶節 百官稱賀 而朱熹奏箚 論以壽皇梓宮在殯 不當講行賀禮 當時君臣能盡誠孝之極 而重法萬世至矣(中略) 則殿下在諒闇之初 不宜下受處典 降旨退抑有何不可」(『久菴集』卷一)

30) 「帝王之學 異於文士詞章之學 修己治人 體用本末 俱備者 帝王之學也」(『久菴集』卷一)

31) 〈贈釋子說〉에서는 金就文의 佛敎觀이 反映되고 있다.

32) 拙稿, 朴龍巖時調硏究, 『語文學』 第46輯(韓國語文學會, 1985), pp.216~221 參照.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隱不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父親의 諱는 宗元으로 文科에 及第하여 成均進士를 지냈는데 文章에 뛰어나고 行實의 모범을 보여 鄕里인 海平人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 바 있다. 龍巖의 母親은 盆城 許氏로 生員 許諒의 따님이다. 龍巖은 弘治 癸丑 (成宗 24年, 1493年) 6月 海平面 古里谷에서 出生하였다.

龍巖은 前記한 바와 같이 成宗 24年(1493年) 6月 父親 默齋 宗元과 母親 盆城 許氏 사이의 1男 4女 가운데 獨子로 태어났다. 그의 家庭은 累代에 걸쳐 善山郡 海平面에 居住했는데 그도 이곳 古里谷舊第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幼年時節을 보냈다. 龍巖은 出生時부터 他人과 달리 체모가 非凡하고 눈동자에 神彩가 발하였고 岐嶷와 志氣가 非凡, 高邁하여 幼時의 行動이 범상치 않았다. 아울러 天性이 至孝하고 바탕은 민첩하였다. 7歲때에 이미 小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운 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몇 차례이고 반복하여 반드시 그 뜻을 깨닫고서야 日課를 마쳤다. 龍巖은 10餘歲를 지남에 文章이 完熟해졌고, 13歲(燕山君 11年 1505年)에는 經典의 一讀을 끝내고 그 깊은 뜻에 心醉될 程度였다. 本格的인 修業은 18歲(中宗 5年, 1510年)때에 金就成과 交遊하면서 시작된다. 그도 天性이 穎悟하고 일찌기 學問하기 즐겨했으며, 晩年에 이르도록 龍巖의 좋은 學問的인 벗이기도 하였다. 龍巖은 26歲時(中宗 13年, 1518年) 一善 金氏 柏의 따님을 취하여 婚禮를 치루었다. 그는 계속해서 松堂 朴先生을 京師에서 師事하여 學問의 大方을 修業하며 吉人에 資했다. 이어 27歲(中宗 14年, 1519年) 春節 進士에 올랐는데 試官인 金慕齋 安國도 試卷 〈巡狩賦〉를 보고 급제시켰음은 물론 그의 재주에 탄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당시는 士禍가 빈번한 때이기에 仕路에 나가지 말라는 父親 默齋公의 嚴命에 따라 오직 학문만에 전념하기 위하여 龍巖은 不仕還鄕했던 것이다. 아울러 같은 해 7月 父親이 病席에 눕게 되고, 이 해 11月에 世上을 떠나니 그 哀痛한 바가 극진했으며, 本家에 25里 되는 上林驛 北沙夫洞에서 장사지내고, 侍墓했으며, 그 스스로 先考의 行狀, 墓碣銘, 碑陰記를 지었다.

그는 홀로 된 母夫人 盆城 許氏를 지성껏 받아들였는데, 그가 지극한 孝子였다는 것은 年高한 母親을 봉양하기 위하여 그 후 한번도 鄕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로도 입증이 되는 것이다. 30歲(中宗 17年, 1522年) 때 학문과 덕행의 면에서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 松堂 朴英의 訃音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접하게 되었다. 그의 嗚咽의 心情과 遺恨은 어떤 것 어떠한 말로써도 끝내 이룰 수가 없다고 하며 〈祭松堂朴先生文〉을 지어 영전에 바치고 大哭해 마지 않았다. 先親의 追慕의 情을 禁하지 못하여, 35歲(中宗 22年, 1527年)되던 해 尙州에 머물던 先親과 交分이 두터웠던 朴訥齋 祥을 알현하였다. 그는 不惑의 나이에 이르자 學行을 兼備하고 古人의 嘉言善行을 토론하고 隣人을 敎化하는 것을 平生의 事業으로 여기게 되었다. 38歲(中宗 25年 1530年)에는 慕賢의 一環으로 〈武夷情舍詩〉를 지었다.

40歲(中宗 27年, 1532年)時 洛江邊 龍沼 옆에 龍首庵을 짓고 自得 號를 龍巖이라 불렀고, 항상 聖賢의 가르침을 앞세워 인근을 교화하게 됨에 그의 德望은 날로 높아 갔다. 이 때에 그는 한가로운 隱逸君子의 풍모를 여실히 보여 주는 時調作品 4首를 창작하였다. 45歲(中宗 32年, 1537年)때에는 朴雲 自身이 학문을 닦고 後生들을 교도하는 곳을 明鏡堂이라 이름하고, 이 周邊의 勝景을 詩로써 노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문탐구의 생활이 계속되어 그는 〈景行錄〉을 비롯하여 5篇의 著述을 남겼다. 이 가운데 〈景行錄〉은 龍巖이 47歲(中宗 34年, 1539年)에 착수하여 2年만에 完成시켰다. 〈三侯傳〉은 48歲(中宗 35年, 1540年)에 〈擊蒙篇〉은 50歲(中宗 37年, 1542年), 〈紫陽心學主論〉은 59歲(明宗 6年, 1551年), 〈衛生方〉은 60歲(明宗 7年, 1552年)時에 찬술되었다. 이들 著述物의 內容은 한결같이 聖賢의 躅을 仰慕함이며 忠義의 徽이 아닐 수 없다.

52歲(中宗 39年, 1544年) 11月, 王이 昇遐함에 北向 哭盡哀했다고 하는데, 그는 역시 忠孝를 人倫의 根本으로 믿었던 人物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56歲(明宗 3年, 1548年) 10月 母親이 世上을 떠났다. 그는 28歲(中宗 15年, 1520年)때에 父親 朴宗元을 여의고, 孝行이 특출하여 20餘年間 母親을 봉양함에 있어서 能養과 承志를 다해서 극진히 모셨으며, 항상 곁에 모시어 손수 시중을 들었고,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 天壽를 다한 母親마저 世上을 떠나니, 그 애절함이 하늘에 사무쳤으며 3年동안 묘옆에 草廬를 짓고 나물죽만 들며 侍墓의 정성을 다 했다. 또한 임종 직전까지도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해 朝夕으로 祠堂에 참배했고, "부모님의 마음을 위하고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며 곧 효도"라 한 孔子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분이 龍巖 朴雲이다.

晩年에는 金眞樂堂, 李晦齋, 李退溪 等과 학문을 서로 강론하였으며, 특히 眞樂堂 金就成과는 平生의 좋은 벗이 되었다. 龍巖이 58歲되던 해 金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成이 世上을 떠나자, 그는 祭文을 지어 벗을 잃은 애통함을 금하지 못했고, 60歲(明宗 7年, 1552年)때에는 生甥女壻 崔應龍과 더불어 東海를 유람하고 〈關東行錄〉을 지었다.

龍巖이 61歲(明宗 8年, 1553年)되던 봄에 晦齋 李彦迪이 世上을 떠나자 同道의 交友를 잃은 슬픔에서 아래와 같은 哀詞를 짓기도 하였다.

嗟公生世晩	오호라 그대 生世 늦어서
古意遠相追	멀리 古意를 따랐네
學術承朱子	朱子의 學問을 이어받고
淸期到伯夷	伯夷의 淸廉을 갖추었도다.
謾將忠孝事	忠孝의 한 가지 마음으로
不負聖明時	聖主를 받들었도다.
死返長沙路	귀양살이의 길에서 돌아갔으니
空令志士悲	허무하도다. 志士의 슬픔만 자아낼 분이라.

그리고 龍巖은 俛仰亭 宋純과도 남다른 交分이 있다. 宋純은 60歲부터 62歲까지 善山都護府使로 在職하였다. 여기에서 默齋 李文楗, 柳村 黃汝獻, 鄭溪 宋希奎, 松亭 盧守誠, 龍巖 朴雲 等과 交遊가 있었고, 龍巖은 62歲(明宗 9年, 1554年) 3月 洛東江亭에서 宋純과 酬唱詩를 지었다고 한다. 宋純도 뒷날 自身의 한가함을 적어서 龍巖을 만난 그날, 다 풀지 못한 情懷를 詩로 지어 그의 文集에 전하게 끔[33] 했다.

龍巖은 66歲(明宗 13年, 1558年)되던 해 陶山에 거주하던 退溪를 만나러 여러 번 길을 떠났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해에도 義城까지 가다가 비를 만나서 虛行을 하고 故鄕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안타까움을 겪었다. 이에 그는 著述物인 〈三侯傳〉과 〈擊蒙篇〉 兩書를 전하고 序文을 지어 보내주기를 간청했다. 이러한 것은 필두로 하여 龍巖은 數次에 걸쳐 神交를 통해서만 退溪를 스승으로 받들었다. 한번도 직접 대면하고 學問에 대하여 討論한 바는 없었으나, 龍巖은 67歲부터 3年間을 退溪를 私淑하고 그 自身의 學問의 內實을 다짐했다. 『龍巖集』에는 前後 7回에 걸친 〈與退溪書〉와 〈答書附〉가 증거로 남아 수록되고[34] 書札을 통한 師弟의 情誼를 엿보게 해 준다.

明宗 17年(1562年) 正月 龍巖은 70歲를 日記로 世上을 떠났다. 朝廷에서는 孝子 旌閭를 내려 그의 孝行을 표창했다. 現在 善山郡 海平面 古里谷 洞

33) 『俛仰集』卷三, 第18面~第19面 《江亭會翌日追寄朴進士雲二首》
34) 『龍巖集』卷之二, 第1面~第19面 參照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口에 세워져 있는 孝行碑 前面의 「孝子成均進士朴雲之閭」란 글씨는 韓濩 石峯의 親筆이다. 그리고, 上記 海平面 所在의 洛峰書院에 龍巖이 配享된 것은 그의 死後 85年만인 仁祖 24年(1646年)의 일이다.

그의 眷率을 보면 婦人은 初娶에 一善 金柏의 따님이었고, 再娶로는 商山 金獻之의 따님이었다. 그들의 슬하에 4男 1女를 두었다. 長男 瀚는 金就成門下에서 수학하여 司馬試에 合格했으나 不幸히도 早歿하였다. 次男 演은 張顯光門下에서 학업을 계승했고, 한 때 崔晛의 『一善志』편찬을 도운 바도 있다. 三男 潭, 四男 泌은 다같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寒微한 선비로 一生을 보냈다.

Ⅴ. 結　　言

以上 作家에 관련된 傳記文獻資料에 대하여 言及한 部分을 要約하여 本稿의 結言으로 삼고자 한다.

① 作家에 관련된 文獻資料들을 섭렵, 收合하는 作業은 作品理解의 効果的 成果를 圖하는 一面에서 그 必要性이 認定된다.

② 作家의 傳記文獻資料에서 調査, 分析되어야 할 細目은 年譜를 포함한 10個 項目으로 設定될 수가 있다.

③ 年譜는 作家의 生涯에 관련된 諸 記錄들을 可能한 수집하고, 이들을 年代順으로 整理 排列하는 가운데 그 作業이 實効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諸 記錄들은 傳記的 部分과 文學的 事實로 나누어 把握함이 타당하다.

④ 作家가 쓴 姓名은 該 作家의 活動時代를 究明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며, 生歿年代가 未確認된 境遇에는 作家에 관한 記述을 不可能하게 한다. 그래서 研究者 自身은 系譜學資料의 活用을 통해서 作家의 研究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도 있으며, 後孫探訪의 好緣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活動은 傳記文獻資料調査 및 作成을 可能하도록 한다. 이리해서 確認된 作家의 居住地는 文學作品의 創作地와 그 背景을 理解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⑤ 系譜는 一門의 血統으로 規定된 家系를 把握하는 作業을 意味하며, 諸 文集, 家乘 等이 活用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學統은 한 作家의 評價와 位置를 定立하기 위해서 그 究明이 先行되어야 한다. 師友, 門人의 體系的 理解와 상호맥락관계를 밝힌 諸 師友錄, 門人錄 等은 이 方面의 좋은 資料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⑥ 作家의 履歷에 해당되는 部分은 學問傳受, 官職生活, 相黜關係, 流配事實, 詩文創作 等이 포함되어 그 對象이 광범위하다. 이 方面의 活用資料로는 科官譜, 功臣錄, 相黜錄, 王朝實錄 等이 現傳하고 있다. 作家의 性行은 該 人物을 평가하는 性品과 行動을 말하는데, 人物考, 人物志 等을 통해서 적절한 評文을 抽出함이 可能하다. 創作된 詩文內容의 정확한 파악은 作家의 性格 및 思想, 交友의 範圍, 社會的 位置를 究明하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 그리고, 作家에 관련된 逸話는 作品理解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調査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作家들의 風流的인 멋이나 詩情을 接할 수 있다.

⑦ 上記한 調査項目을 토대로 하여 本稿 第Ⅳ項에서는 金就文, 朴雲 兩人에 관련된 內容을 紹介하였다. 前者는 漢詩作家로서 後者는 時調作家로서의 理解와 評價에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後記》

筆者는 本稿의 作成過程에서 도움말을 준 先學 李起哲, 金周漢 兩教授께 本欄을 통해서 다시 한번 感謝의 뜻을 전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